

한국사상에서 감성만족디자인의 개념 연구

A study of sensorial satisfactory design concept in Korean ideolo

김영민

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Kim, Young-min

Dept. of Industrial Design, KGU

박영목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Pa가, Young-mock

Dept. of Industrial Design, SNU

• Key words: 중용(Moderation), 해탈(Emancipation), 무위(Quietism)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인으로써 한국에서 활동한 디자이너로서 한국 디자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디자인을 보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가장 기본적 질문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디자인의 근본 목적인 '사용자의 만족'의 개념을 한국 사상에서 찾아 보기로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요소를 찾게 되었다. 그중 감성이 만족해야 사용자는 디자인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감성'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감성'을 '제품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용하면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 하였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사상을 어디까지로 둘 것 이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상의 근간인 유가, 불가, 도가는 발전과정에서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사상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가와 도가의 경우 발생학적으로도 고대한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알아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의 범위를 유가, 불가, 도가로 하고 이를 한국사상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다.

2. 한국사상에서 만족의 상태

2-1. 유가(儒家)-중화(中和)

"희흥 노충 애락 락樂이 아직 표현 되지 않았을 때를 중(中) 이라 하고 그것이 표현되어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하니, '중(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大本)이요, 화(和)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중용(中庸)

즉, 중화란 희,노,애,락이 표현 되지 않은 마음이 가운데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용에서는 정을 희로애락 네 가지로 말 하였지만, 후세 학자들은 더 늘려 희흥,노충,애락,구懼,애愛,오惡,욕欲의 칠정이라 하였다. 중용에서는 사람의 감정의 뿌리를 중이라 하였다. 정감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일체 현상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라고 한 것이다. 유의 할 점은 중이 단순히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본성으로 중을 설명할 때 적연부동(寂然不動), 충막무짐(忠漠無朕), 허령불매(虛靈不昧)으로 표현 한다. 적연부동 寂然不動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정 의 심성을 뜻한다. 충막무짐 忠漠無朕은 아무런 조짐도 없이 텅 빈 것 같은 심성을 뜻 한다. 허령불매

虛靈不昧에서 불매는 광명한 심성을 뜻한다.아무런 소리나 냄새, 그리고 형체도 없기에 허무한 것 같으나,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단 자극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허령하다고 한다. 허령한 심성이 외물의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갈림길이 생긴다. 이 갈림길을 기(氣)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 고대철학의 이해 이강수 1999

중용에서는 성지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존덕성尊德性和 도문학道問學을 제시하였다. 존덕성은 성인의 도덕성을 존경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자기의 덕성을 공경하여 받든다는 두 가지 뜻이다. 도문학은 치지공부이다. 이치를 분석함에는 떨 끝 만한 차이도 있지 않게 하여 정미함을 다하고, 일을 처리함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중용을 따르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도문학의 방법으로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변明辯, 독행篤行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박학은 좋은 책과, 훌륭한 스승에게 널리 배우는 것이다. 심문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세히 캐묻는 것이다. 신사는 이치를 터득하고자 생각하는 것이다. 명변은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박학과 심문과 신사와 명변을 거쳐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것이 명변이라고 한다. 중국 고대철학의 이해 이강수 1999

2-2. 불가(佛家)-해탈(解脫)

인간의 근본적 아집(我執)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인도사상(印度思想)불교는 이것을 종교와 인생의 궁극 목적으로 생각하였다. 즉 범부는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의 번뇌 또는 과거의 업(業)에 속박되어 있으며, 이로부터의 해방이 곧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원은 타율적으로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즉 반야(般若)를 증득(證得)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번뇌의 속박을 떠나 삼계(三界:欲界色界無色界)를 탈각(脫却)하여 무애자재(無碍自在)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이 깨달음을 정각(正覺:abhisambodhi)이라고 한다.

부처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하여 《아함경(阿含經)》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사성제(四聖濟),십이인연(十二因緣),사선삼명(四禪三明) 등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정에 의하여 법(法:dharma)을 깨달았다고 하겠다. 즉 선정은 강렬한 마음의 집중이며, 여기에서 생긴 지혜는 신비적 직관(直觀)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실지견(如實知見:있는 그대로 옮겨 봄)이다. 이 지혜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와 일체가 되어 확고부동하게 되었는데, 공포에도 고통에도, 나아가서는 애욕에도 산란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不動)의 깨달음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음 이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탈(解脫:moka)이라고 하며, 이 해탈한 마음에 의하여 깨우쳐진 진리를 열반(涅槃:nirva)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구이다. 그것은 행위(行爲)로, 삶으로 실증(實證)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해탈은 참 자유, 열반은 참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두산백과사전 불가의 해탈은 중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도는 팔정도와 12 연기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도란 유무중도(有無中道) 즉,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상태이다. 세상이 일어나는 것, 세상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볼 경우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세상이 결국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있다고 라고도 못한다.

유가의 중용은 가운데의 상태를 말하나, 불교의 중도는 좀 더 형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도란 실질적 차원 즉 '고행과 쾌락의 극단을 떠나서 중도의 실천'을 설할 때 초기 불교 경전에서 사용한 말이다

2-2. 도가(道家)-- 무위자연(無爲自然)

무엇이 이른바 '자연'인가? 도가적인 어법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그러함'(自己如爾)이 곧 '자연'이다. 불교의 용어를 빌리면 '본래 그러함'(本來面目)이다. 무위는 자연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는다. 노자는 '赤子?兒'를 빌어 사람의 본연지성을 표현했는데 이 또한 본연지성(自然之性)을 말한 것으로서 일체의 사회성을 배제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인성관은 유가의 인성관과 큰 대조를 이룬다. 유가는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고 있는데 이때 분별의 기준은 모종의 사회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문화로부터 조형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한 '갓난아기'는 군자도 소인도 아니다. '갓난아기'라는 인간형은 사회나 문화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문화의 척도로서 이것을 재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소오의 내재적 정신경계는 마음의 근심도 즐거움도 없는 '무정(無情)'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허(虛)', '정(靜)', '념담(恬淡)'과 '순수(純粹)'한 내심의 수양을 거쳐서 '사물에 의해 상해되지 않는' '무정(無情)'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無情'은 노자로서 말하면 "가물한 거울을 깨끗이 씻은" 척제현람(滌除玄覽) 후에 도달하는 "성인은 항상 스런 마음이 없다"는 경계이다. 『장자』로서 말하면 "성인의 마음은 고요하다"(천도 天道)는 경계이다

"눈밝음(明)을 즐기면 색채에 빠지게 되고, 귀밝음(聽)을 즐기면 소리에 빠지게 되면 仁을 좋아하면 덕을 어지럽히고, 義를 좋아하면 理에 어긋나며, 禮를 좋아하면 技를 돕고, 樂을 좋아하면 음탕함을 돕는다."(장자 莊子)

장자에서 보듯이 도가의 무위 사상은 유가조차 넘어서는 형이상의 극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가 개별적 사물들에 전개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 도가 천지 만물의 공통된 본성이라면 덕은 개별적인 사물들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도 덕이다. 이러한 덕을 회복하려면 습성에 의하여 물들은 심성(心性)을 닦아야 한다. 이를 성수반덕(性脩反德)이라고 한다. 장자는 그 방법으로 심재(心齋)와 전일(專一)과 좌망(坐忘)을 들었다.

5.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유가, 불가, 도가에서 말하는 '만족'상태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상에서 사용자 감성만족의 개념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피, 유가의 중화, 불가의 해탈, 도가의 무위자연은 사용자 즉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철학이러기 보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사상에서는 타인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상에서 '사용자 감성 만족'의 의미를 사용자 중심으로 찾고자 했던 본 연구는 한국사상의 '만족'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디자이너가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의 최상의 물건을 만들고 사용자가 만들어진 그 물건을 사용할 때, 많은 사용자들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상에서 사용자 만족의 개념'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디자이너이며, 둘째, 사용자의 만족 이전에 디자이너의 만족이 전제 되어야 하며, 셋째, 디자이너 자신의 만족은 수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양의 핵심은 자신을 객관화 시키는데 있다. 로 정리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에 맞는 감성지향 디자인 기반연구로써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한국사상에서 사용자 감성 만족의 개념'은 '디자이너 자신이 만족에 도달하는 디자인을 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며 얻는 만족'이라 결론 지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사상에서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유가의 도문학 불가의 중도와 팔정도, 도가에서 성수반덕의 심재,전일,좌망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인 교육에 적용가능성을 찾아봄을 향후 연구과제로 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사상사 지두환 저 역사문화 1999
- 동양심리학 최상진외 4인 저 지식산업사 1999
-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한국사상연구소 예문서원 2001
- 이기동 논어강설 2003
- 중용철학 楊祖漢 저 황갑연 역 서광사 1999
- 장자 이기동 편역 동인서원 2001.
- 노자와 21세기(1) 김용옥저 통나무 2000
- 도덕경에 대한 두개의 강의 여배림,이이 저 박종혁 편역 서해문집 2000
-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프리츠포 카프라 저 이성범 김용정 역 범양사 2001
- 철학개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0
- 십팔사략 曾先之 저 자유문고 1998
-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카이호히로유키, 히라다에초코, 쿠로소 마사아키 저,
- 박영목, 이동연 옮김 1998
- 도덕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사단칠정론에 대한 철학적 분석 김영건 서강대
- 사단칠정논변과 조선유학의 흐름 손영식 울산대학교
- 유식학개론 이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 초기불교개론 최봉수 동국대학교
- 중도에 관해서 박규상
- 두산세계대백과